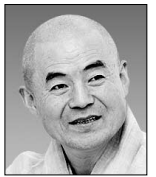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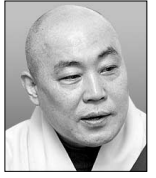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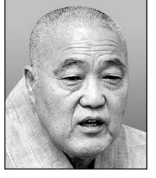
석종사 무량범종 다종법회
총주 석종사 주지 혜국 스님은 9월 3일 오전 11시 석종사 범종부에서 무량범종 다종법회를 봉행한다.



하정청화 및 자연보호 활동
남양주 구리 불교사원연합회 회장 철안 스님(법명사 주지)은 8월 24일 한강 지류인 수동굴 하천에서 자연보호 및 하천정화활동을 했다.



여의도포교원 개원 20주년 법회
서울 여의도포교원장 현진 스님은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청해 개원 2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대전사암련 18대 회장 취임법회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운봉 스님은 8월 29일 보문산 그린타워에서 대전사암련 18대 회장 취임법회를 거행했다.



'다시 태어나도...' 출간법회
구례 천은사 주지 금중 스님은 9월 1일 오전 11시 극락보전에서 저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출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 수행법 주제 강연
실상사 화엄학원 강사 각목 스님은 9월 29일, 10월 6, 13, 20일 오후 7시 서울 인드라광교육성센터에서 '부처님의 수행법' 주제로 강의한다.



관문사 백중법회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월 19일 이강두 최고위원, 김병호·주호영·김태환·김재경 의원 등과 함께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백중법회에 참석했다.

계간 '불교문예' 편집주간에 이은봉 시인



이은봉씨

공광규씨

김연자씨

현대불교문인협회는 최근 <불교문예> 편집주간에 이은봉 씨, 부주간에 공광규 씨, 편집장에 김연자 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은봉 주간은 공광규 문장과 교수로 재직하며 평론과 시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공광규 부주간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시집 <지독한 불문> 등을 발표했고 김연자 편집장은 <시대문학> 사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김연자 기자 shannok@buddhapia.com

“불교는 내 생활 깊은 곳의 동력”

정년퇴임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호 교수

오직 진리에 대한 열정만으로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거침없는 지적 항해를 거듭해온 김형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철학종교연구·사진). 김 교수의 정년퇴임을 맞아 8월 26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념강연회가 열렸다. 김형호 교수는 “자기철학”을 전개하는 몇 안 되는 철학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인물.



기념강연 주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철학'.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셀로 시작해서 레비스트로스, 라강, 푸코에서 하이데거, 데리다 등을 거쳐 공맹과 노장, 한국의 퇴계와 율곡 등 동양철학에 이르렀던 김 교수가 이제 불교에 뜻을 내렸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김 교수의 지론은 동서철학사가 구성철학과 해체철학으로 구분된다는 것. “자아·의식이 세상을 구성해 진리를 진리답게 만들려고 하는 철학이 구성철학”이라면, “의식이 세상의 왕인 양 진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거 짓된 것으로 간주하는 철학이 해체철학”이다.

서양·동양 철학 거쳐 불교에 귀척

“불교의 지혜 배우는 건 시대 요구”

김 교수는 “자아를 해체하고 무아를 주장하는 불교는 진정한 해체철학이며, 참된 지혜의 담지자”라며 “불교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색즉시공을 “소유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유투법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존재론의 대공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공즉시색에 대해서는 “모든 만물의 생멸과 존재방식은 무한대 허공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공의 현상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여기서 김 교수는 소유론이 아닌 진정한 존재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봤다. “존재론을 말하면서 실상은 환상과 소유에 집착하는 대다수 철학의 한계를 넘어선 불교야말로 진정한 존재론이며 철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사유의 모습이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기념강연 주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철학'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퇴임강연은 학문 인생을 결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철학 강연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사상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본다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했다.

나의 학문적 관심사는 서양철학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중심주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불교는 이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교수님에게 불교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동력이다. 불교는 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불교를 학문이 아닌 수행으로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산책할 때 원각경 계승을 읊고, 출근하면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목탁을 치며 천수경과 금강경을 독송한다. 퇴근하면 반야심경을 독경한다.

수행은 아상을 지워줘 하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상이 강해서 번뇌가 심했던 나로서는 이보다 값진 수양이 없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2003년 계를 받기도 했다.

▲후학에게 해줄 말씀? -세계를 설명하는 틀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자기 전공한 특정 철학만 고집하다보니 사유가 제약되고 편협해짐은 물론, 현실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 이 같은 풍토는 철학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고, 생명력을 약화시켜 철학은 쓸모없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철학, 나아가 인문학이 위기를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퇴임 후 계획은? -일몰이 아닌 반야지혜를 얻고 싶다. 이는 간절한 소망이다. 반야지혜를 얻고 알았으므로 세상의 부덕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 참선을 배우려 한다.

학문적으로는 <동서철학사> <원효사상> 등을 집필할 계획이다. <동서철학사>는 철학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다루고, <원효사상>에서는 원효 스님을 철학적이고 시운 말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불교연구를 통해 보살도 정신이 우리를 삶에 배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2005년 임관 신입 ROTC 장교 수계법회



2005년 임관한 ROTC 신입장교 650명에 대한 수계법회가 8월 21일 육군 종합행정학교 호국 남성사에서 봉행했다. 장수 작별장사 조실도문 스님을 수계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으로 성장해 가라”고 당부했다.

호국 연무사, 군종교구장 초청법회



육군 논산훈련소내 호국연무사(법사 해산)는 8월 21일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허평환 훈련소장을 비롯, 훈련병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 생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식 저서 '한문서당' 출판기념회



백암 김광식 선생(정주 명광사 설법원장)의 <한문서당> 출판 기념회가 8월 23일 정주 명암타워에서 진행됐다. 태고종 총부주원장 월담 스님을 비롯, 이원종 총부도사, 한대수 정주시장 등이 참석한 출판기념회에서 김광식 선생은 “남노소 누구나 한문을 쉽게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 해인종 하계수련회



대한불교 해인종(총정 해지)은 8월 23-25일 울산 보현사에서 제2차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해인종 총정 해지 스님, 원로원장 혜종 스님, 교육원장 응관 스님을 비롯 고구 정주원장, 신도 등이 참석한 수련회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천도재와 응관 스님의 '정도불교와 생활불교' 특강 등이 마련됐다.

부산불교신도회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8월 20-21일 마라도 기원사에서 평화통일기원 수록대제와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공병수 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임원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사에서 통일목표를 식수하고 부산불교신도회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사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송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깃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송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Table with columns: 학과, 과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Rows include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연구반.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수시 접수
● 문의처: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676-5929, 핸드폰: 011-9677-4877



Future Astrology Core整理.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Future Astrology Core整理) by Lee Seon-choong. It promises to organize the complex foundations of astrology into an easy-to-understand forma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운명비결 (Fate Secret). Advertisement for a book by Song Il-sung. It claims to reveal the secrets of fate and destiny through the study of the I Ching and traditional Korean astrology, offering a practical guide to understanding one's life path.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2005 Songgyang Buddhist University Traditional Ritual Education University New Student Recruitment). Advertisement for a university established to preserve and teach traditional Buddhist rituals. It lists various courses, enrollment numbers, and contact information.